

철학과 취업에 대한 한 재학생의 생각

09학번 고유석

철학과 하면 취업을 하기 힘든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학이라는 것을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 글에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때 철학과 내에서 공부했던 것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졸업을 앞두고 되면 취업 취직 고민을 누구나 다 하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과에서는 전공을 활용하기 보다는 스펙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대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철학과라는 학과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공을 살려서 직접적으로 취업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다수의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철학과 나오면 점을 잘보냐? 점 좀 봐달라.”, “철학과 나오면 철학관 차리냐?”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이자 어느 곳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글에 적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러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인가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남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있어 좀 더 폭넓은 이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학과 취업에 대한 한 재학생의 생각 ■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과하면 취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논리,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능력이 면접을 보고 논술을 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취업을 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라는 단어가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철학과 후배들이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 단순히 취업에 힘든 학문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을 직업을 가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크게 인정을 받진 않지만 먼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얼마든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철학과 취준생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